

# 현대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전통성 구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mbodiment of Korean tradition of spatial composition of contemporary residence

허진석\* 정용환\*\*  
Huh, Jin-Suk Jung, Yong Hw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Korean tradition of residential space which continues since 1960's.

Analysis of house works of contemporary architects on the foundati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show that the trend and methods of embodiment of tradition in present architecture.

The result of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contemporary architects separate a house into two Chae - An Chae and Sa Rang Chae.

Second, spatial flows in contemporary house works are very active through transition spaces just as traditional residence.

Third, positive An Ma Dang takes on introversion, extroversion and continuity of space and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house.

키워드 : 전통, 주거건축, 전이공간, 해석

Keywords : Tradition, Residence, Transition Space, Interpretation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서구문명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100년의 역사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와 한국전쟁, 그리고 60년대에 시작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탈바꿈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

킬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시간을 살아왔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들의 생활양식에 따른 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또 서구문명의 편리함을 좇은 일부의 국민들은 우리의 생활에 맞지 않는 전혀 새로운 주거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서양화만이 선진화라는 구호아래 우리의 집은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 건축은 민속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건축학계에서는 우리 건축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는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로 2차 대전이후 제 3세계에

\* 영남대 대학원 건축공학석사

\*\* 대구과학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팽배했던 민족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는 전통 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현대건축의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 전통성 구현에 대한 문제를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는 서구화 제일주의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공간을 찾아내는 작은 노력의 하나가 되고자 한다.

## II. 현대건축에서의 전통성의 구현

### 1.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성 구현

한국 건축에 있어서 역사인식에 의한 전통논의에 대한 시작을 김종헌<sup>1)</sup>은 1941년 박길룡(朴吉龍)의 글 「朝鮮住宅雜感」을 들어 이 시점을 한국건축의 전통론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 박길룡(朴吉龍)은 전통에 대한 개념을 근대건축에 의한 이념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벌써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과 확고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는 1961년 4월에 열린 「현대한국건축의 문제점」이라는 심포지움에서 참석자인 김정수, 김종업, 윤장섭씨에게 전통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각종 토론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전통과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는 점차 정리되고 또 구체화됨을 볼 수 있는데, 먼저 60년대에는 국립종합박물관 현상공모가 발표되면서 발주처인 문화재관리국이 내건 공모내용 중 “건물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한 것으로서 컴퍼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이며.....”하는 공모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건축에 있어서 창작정신을 무시하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몰이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비난은 건축계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불과 얼마 후에는 김수근씨의 국립부여박물관

관 건립을 둘러싸고 일간지상으로 김종업씨와 벌인 논쟁은 건축인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한국 건축의 전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60년대는 이상과 같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건축계에서 전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건축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 전반적인 면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1973년 4월에 문학계에서 「문예중흥과 민족문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있었고 같은해 9월에는 「예술에 있어서의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다.<sup>2)</sup> 또한 이러한 전통론에 대한 논의 못지 않게 실제의 작품활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60년대에 비하여 국립종합박물관이나 국립부여박물관 사건처럼 거센 논란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고 논리적인 논고(論稿)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70년대는 60년대보다 좀더 발전되고 체계적인 역사인식에 의한 전통의 추구에 대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편의 석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학술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전통성의 구현의 문제가 그 이전에 다루어진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설계 방법론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웅<sup>3)</sup>은 자신의 현상설계 당선작인 독립기념관에서 사용된 전통성의 현대적인 표현의 기법인 전통건축언어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방법이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김종헌, ibid, p.61

3) 김기웅,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독립기념관 건립계획안을 배경으로, 서울대 석논, 1984

1) 김종헌,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논, 1986, pp.58-59

## 2. 서양 현대건축의 전통성 구현

현대 서구에서 건축사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하면 '근대성'과 함께 '전통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알토(Alva Aalto)나 칸(Louis I. Kahn)의 작품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서구문화적 전통과 지역성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하고있는 것이나, 프랭프톤이 알도 로시(Aldo Rossi), 웅어스(O. M. Ungers)등의 유형론적 접근방식을 주목하는 것도 모두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성의 추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커티스(W. Curtis)의 최근 건축비평에서도 이제 점차 전통과의 접목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다.<sup>4)</sup> 20세기의 모더니즘은 역사성, 지역성 등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배제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더니즘은 역사와의 단절이 아니라 고전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발전이 이루어졌다.

서구 현대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르 꼬르뷔지에는 모듈러(Le Modulor)를 통해 고전미학의 기본이 되어온 황금분할 비례체계를 현대적 공업생산방식과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의 새로운 건축에 대한 5원칙을 가장 잘 적용한 작품인 사보아주택(Villa Savoye)도 사방으로 전개된 정방형 평면에 3층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언덕의 정상에서 자연과 대조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라디오(Palladio)의 로툰다 별장(Villa Rotunda)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와 함께 모더니즘을 주도해 나갔던 미스 반 데어 로헤(Mies van der Rohe)역시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는 19세기 고전주의자 쉰켈에게서 그의 디자인 규범이 되는 기하학적 형태와 상세 처리에 있어서의 순수성, 비례, 스케일감을 배웠으며 고딕의 합리성을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이념화하여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의 시그렘 빌딩 및 I.I.T의 크라운 홀 등의 작품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근대 미국건축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미국 전통의 융통성이 풍부한 평면에 다른 여러 문화들과의 접목을 통하여 미국적 건축언어를 확립하였다. 그는 모더니즘의 이론가들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실체는 절대성을 지닌 물리적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지역성과 시대성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통해 미국적 건축을 표현했다. 라이트는 이렇게 그 지역과 시대의 문화를 포함한 것으로 자신에 의해 해석된 건축을 유기적 건축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근대 서구건축의 슬로건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 function)'의 의미는 경제성으로 인한 물리적 기능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왜곡되어져 인간의 주관적 정서, 상징성, 과거의 전통과의 맥락은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건축의 한계는 레이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게 되었는데, 레이트 모더니즘이 구조와 재료, 설비 등을 고도의 현대적 기술로 구사하면서 고도의 감각주의적 새로운 '하이테크(high-tech)' 미학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에서 그 모티브를 추출하여 이를 도시환경, 문화적 맥락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sup>5)</sup>

## Ⅲ. 한국 전통 주거건축<sup>6)</sup>의 이해

### 1. 전통 주거공간의 형성배경

#### 1) 인문·지리적 배경

현대사회와 과거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4) 임창복, 한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반성과 과제, 건축문화, 9201, p.146

5) 김종현, *ibid.*, p.44

6) 본 논문의 사례대상인 전통주거건축은 조선시대에 양반들을 위한 상류주택을 가리키는 것임

하나는 신분계급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이다. 사회의 신분계층이 나뉘어졌을 때 주택의 형태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상류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주택을 통해서 과시하려 하였고, 재산을 모은 하류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주택도 상류주택과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례가 만연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신분에 맞는 주택의 규모와 형태, 재료 등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듯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형태, 재료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사규제(家舍規制)라고 하며, 가사규제는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으며 주거건축의 신분, 계층적 특성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적으로 한국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와의 점이지대(漸移地帶)에 위치하여 추운 북부지방과 따뜻한 남부지방으로 나뉘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장마철 이외에는 항상 청명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 춥고 긴 겨울과 더운 여름은 주택에 있어서 온돌과 마루라는 특성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산지와 소구릉의 기복이 많고 대부분의 지표는 화강암으로 덮여 임업에 불리하게 되어있다. 양질의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일본에 비해 석재를 많이 사용하는 목조건축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낮은 산세를 본뜬 곡선미가 탁월한 건축 조형미를 가지게 되었다.

## 2) 사상적 배경

### (1) 유교사상

유교의 의미는 경전과 함께 유교전통의 핵심적 내용으로 전승되어온 '예'의 문제로 유교에 있어서 예는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의식을 통합하는 연결고리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곧 유교사상의 본질적 내용이 형식적 표현을 통하여 실현되는 과정을 제도화 내지 의례화하는 데에서 바로 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는 유교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며, 유교사상의 근본관념으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일상생활

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역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교에 대한 이념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던 당시의 정치세력들이 조선왕조의 왕권의 정당성과 강화를 위해 구국이념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유교사상은 정치이념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건축적으로는 공간의 위계성, 공간의 분화 등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 (2) 풍수지리사상

풍수지리설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고 전승되었다.

풍수지리라 함은 지중(地中)에 일종의 신비한 기(氣)가 있어 이것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생과 사를 구별하여 생자(生者)를 양(陽)이라 하고, 사자(死者)를 음(陰)이라 하였으며, 생자의 주택지를 양택(陽宅), 그 주위를 양기(陽基)라 하여, 인간의 주거할 수 있는 땅으로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장소를 말한 양택론을 민간 건축 문화를 지배해온 원리로 삼았다.<sup>8)</sup>

## 2. 전통 주거건축의 사례 고찰

사례의 선정은 지난 1998년 모 방송국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조선시대 사대부 주택들 중 건축학적·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한국 10대 건축」 가운데 살림집의 모습을 아직 잘 유지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전통주거건축

주 택 명	위 치	건립년도
손동만 가옥	경북 원성군 강동면 양동	1458년
의성김씨 대종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장동	16세기 중반
임정각(臨淸閣)	경북 안동시 범홍동	조선 중기
녹우당(綠雨堂)	전남 해남 연동	조선 중기
유조루(劉鳥樓)	전남 구례군 토지면	18세기 후반
김동수 가옥	전북 정읍군 산외면	1784년
선교장	강원도 강릉시 윤정동	19세기 초반

7) 이용주, 세계종교사입문, 청년사, 1991, p.256

8) 현두용, 한국건축의 양택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이 가운데 손동만 가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손동만 가옥**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에 있는 손동만 가옥은 1458년 손소가 양동에 정착하면서 지은 집으로 살림집의 모습이 온



그림 1. 손동만 가옥

전히 남아있기로는 이 집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집은 월성 손씨의 대종가로 대지 자체가 높은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에서부터 대종가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sup>9)</sup>

손동만 가옥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와 안채와의 간격이 아주 짧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을 보여줌으로써 자연히 사람

의 시선이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 오른쪽 마당으로 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는 대종가의 존재가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둔 공간구성이 아닌가 짐작된다. 살림채의 평면은 지극히 평범한  $\square$  자형 평면을



그림 2. 배치 및 평면

취하고 있지만 사랑채를 안채에 포함시키고 2m 짜리 '내외담'을 사용하여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적인 분할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 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들 중 현대에 재현 또는 수용 가능한 공간적 특성들은 첫째, 공간의 물리적인 분화를 들 수 있다. 남녀 공간의 분화와 상하공간의 분화와 같은 비물리적인 분화는 조선시대의 독특한 시대상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간적 특성이므로 현대에 그대로 재현·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전

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원활한 흐름을 들 수 있다. 전통주거건축에서 이용되는 전이공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전통주거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공간의 흐름을 현대건축에 재현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마당의 구성과 안마당의 성격에 따른 공간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전통주거건축에서의 마당의 구성에 따른 공간적 연속성과 안마당의 성격에 따른 공간구성을 현대에 재현할 수 있다.

표 2. 손동만 가옥의 공간구성의 특성

주택명	손동만 가옥	건립연도	1458년경
평면유형	사랑채가 안채에 속해 있는 $\square$ 자형		
공간구성의 특징	-대종가로서 사당으로의 시선을 유도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안채 -넓은 사랑마당을 갖는 개방적 사랑채 -공간의 위계감 부여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Type I) -채와 채를 연계(Type II)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Type III) -외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Type IV)		
마당의 구성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안마당의 성격	안마당은 한 동으로 보이는 안채와 사랑채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대청과 부엌, 중문으로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짐		

표 3. 사례분석의 결과

주택명	공간구성의 특성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				마당의 구성 및 안마당의 성격			
		I	II	III	IV	I	II	III	IV
의성김대종가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하나의 동지닌 구성 -남녀공간의 분화가 전이공간에서 이뤄짐 -공간의 위계성	Y	Y	P	P	Y	Y	P	P
임청각	-행랑채를 이종으로 두고 뒷간을 배개로 서로 연결시킴 -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공간의 차등스런 위계성	Y	Y	P	P	Y	Y	P	P
죽우당	-하나의 축선 상에서 공간의 위계성과 연속성을 보임 -안채를 사랑채 뒤에 높이고 진입은 우회시키는 폐쇄적인 안채를 구성	Y	Y	P	P	Y	Y	P	P
운조루	-자형의 행랑채와 하나의 동지닌 보이는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 -전형적인 남녀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짐	Y	Y	P	P	Y	Y	P	P
김동수 가옥	-각 채의 분화가 분명한 구성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의 공간적 연속성을 이룸 -대문간채를 따로 구성하여 안채로의 직접적인 시선공유 차단	Y	Y	P	P	Y	Y	P	P
선교장	-안채와 두 개의 사랑채, 두 개의 뒷간을 보편적이 배치 -후생당이라 불리는 길다란 행랑채로 전체공간을 보호하는 구성 -공간의 위계성이 최우로 형성	Y	Y	P	P	Y	Y	P	P

9) 김봉렬, 시대를 담은 그릇, 이상건축, 1999, p.265

## IV. 전통성을 구현한 현대주택의 사례 고찰

### 1. 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분석대상 작품의 선정기준은 시기적으로는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로서 작가 자신이나 비평가들에 의해 전통성 구현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택에 한정하였다.

사례분석의 방법은 전통 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 즉, 공간의 분화,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 마당의 구성과 안마당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다.

표 4. 분석대상 작품

작품명	작가명	위치
형님댁	정의용	경북 경산시 중방동
JUXTAD	김인철	경남 마산시 함포구 장곡동
학봉 수종당	송효상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명당	김홍수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봉학재	우경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오지 24·25	조문송	광주시 북구 오지동
남한산성주택	류훈수	경기도 광주시 중북동
옥련동주택	송광섭	인천시 남구 옥련동
이세증가	김원	성기도 고양시 일산동

이들 사례 작품들 중 형님댁을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

### 2 사례분석

#### 형님댁

평면은 ㄷ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로 구성된 전통주거건축의 체나눔기법을 사용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ㄷ자형으로 둘러싼 가운데 안마당을 두고 있다. 배치상 안마당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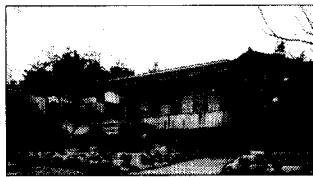


그림 3. 형님댁 전경

채와 사랑채에 완전히 에워싸여진 형태이나 건물을 지면에서 필로티로 들어올림으로써 안마당은 필로티 사이로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원활해지는 성격을 가진다. 안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통주거건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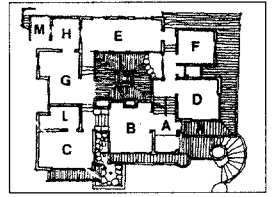


그림 4. 형님댁 평면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청을 전이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공간적 흐름을 활발히 피하고 있고 식당과 부엌을 안마당에 면하여 뚝으로써 내부공간의 외부로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채의 구성은 전통주거건축의 사랑채의 구성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다른 현대주택 작품들과는 달리 사랑채를 하나의 완전한 채(柵)로 구성하여 사랑방과 건넌방 그리고 사랑대청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마당의 구성은 이 주택에서는 진입부분에 앞마당과 주택의 가운데 안마당 그리고 뒷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의 흐름을 주도하는 전이공간의 구성으로는 내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복도와 홀,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복도 그리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복도와 대청, 툇마루와 같은 전이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채의 사랑대청의 경우 전통주거건축의 전이공간과 같이 외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다만 내부공간간의 연결만을 하고 있다.

표 5. 형님댁 공간구성의 특성

주택명	형님댁	작가명	정의용
평면유형	ㄷ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를 둘러싼 ㄷ자형의 평면	ㄷ자형의 사랑채를 홀과 복도로 연결시킨 ㄷ자형의 평면	
공간의 분화	전통주거건축의 안채와 사랑채를 연상시키는 두 채로 공간을 분화시킨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	Type I	● 방+복도+식당	
	Type II	● 안채+홀+복도+사랑채	
	Type III	● 방+복도+안마당	
	Type IV	● 안마당+대청+툇마루+앞마당	
전이공간의 구성	대청, 복도, 홀, 툇마루		
마당의 구성	안마당, 앞마당, 뒷마당		
안마당의 성격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 개의 전이공간을 통해 각 내부공간으로 또 외부공간으로 연계되는 적극적인 성격의 안마당이 된다		

표 6. 사례분석의 결과

주택명	공간의 분화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				마당의 구성 및 안마당의 성격
		I	II	III	IV	
JUXTAD	전통주거건축의 채나눔 기법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의 두 개의 채로 분화	y	y	y	y	-안마당, 앞마당, 뒷마당 -안마당은 각 전이공간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환발하 연결되는 적극적인 성격
수출당	안채에 해당하는 본채와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사랑방으로 분화	y	y	y	y	-안방(안마당), 앞방(사랑마당), 뒷방(뒷마당) -안마당은 각 전이공간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환발하 연결되는 적극적인 성격
자방당	본채와 사랑채로 분화	y	y	y	y	-안마당, 사랑마당, 뒷마당 -안마당은 각 전이공간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환발하 연결되는 적극적인 성격
몽학계	안채와 사랑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채로 분화	y	y	y	y	-안마당(안마당·사랑마당), 정원(뒷마당) -안마당은 각 전이공간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환발하 연결되는 적극적인 성격
오치 24·25	전체적으로 집을 두 개의 채로 분화시키고 그 사이에 전이공간을 두어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	y	y	y	y	-안마당, 뒷마당 -안마당은 마루와 대청마루를 통해 각 채와 연결되고 마루를 통해 뒷마당과 연결되는 비교적 적극적인 성격
남한산성 주택	안채에 해당하는 본채와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별채로 분화	y	y	y	y	-안마당, 바깥마당 -안마당은 각 채에 둘러싸여 있어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나 전이공간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상호 연결되는 적극적인 성격
유련동주택	전체적으로 집을 안채와 사랑채의 두 개의 채로 분화	y	y	y	y	-안마당, 바깥마당, 뒷마당 -안마당은 부분적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연결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적극적인 성격
이색중가	전통주거건축의 안채와 사랑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분화	y	y	y	y	-안마당 -안마당은 협소한 대지의 영향으로 내부공간과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소극적인 성격

### V. 결 론

전통주거건축이 형성된 배경과 공간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전통주거건축을 대상으로 공간적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공간적 특성들을 기반으로 현대작가들의 주택작품들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현 건축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성 구현의 경향과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물리적인 분화는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전통주거건축의 채나눔 기법에 따라 안채(본채)와 사랑채의 두 개의 채로 분화시키는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주거건축에서 보이는 명확한 채의 분화라기보다는 안채의 기능을 하는 본 건물과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사랑방이나 서재 또는 거실과 같은 하나의 실을 따로 분리하여 전통성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전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흐름은 전통주거건축에서와 같이 내부공간과 내부공간(방↔복도↔식당, 방↔거실↔방), 채와 채(안채↔복도↔사랑채, 안채↔대청마루↔사랑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방↔복도(거실)↔마당, 방↔뒷마루↔마당), 외부공간과 외부공간(안마당↔거실↔뒷마당, 안마당↔뒷마루+복도↔뒷마당)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전이공간들이 전통주거건축에서 가장 주요한 전이공간인 대청, 뒷마루, 부엌 등과 같은 공간들이 현대에 와서는 거실, 현관, 복도, 식당, 테라스와 같은 공간으로 대체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마당의 구성과 안마당의 성격에서는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주택 내에서 여러 성격과 기능을 지닌 마당으로 재해석되고 있고 특히 안마당에 있어서도 안마당은 현대에 와서도 공간의 내·외향성과 연속성, 주택 내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또 각 전이공간들과 개구부를 통해 내·외부공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의 공간으로, 전통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전통 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과 대안은 현대건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통성 구현의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기초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전통주거건축과 현대 주택작품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수가 한정되어 보다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가 되지 못

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발전된 자료와 방법들이 소개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정의용, 전통적인 주거건축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론, 1978
2. 김일진, 이씨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배치에 관한 기초적 연구, 영남대 석론, 1974
3.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 박론, 1991
4. 김인철, 한국건축의 전통계승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1981
5. 손철송,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4
6. 이동우,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1986
7. 김종헌,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론, 1986
8.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98
9. 정인국, 한국건축의장론, 일지사, 1998
10.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6
1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12. 주남철, 한국주택의장, 일지사, 1997
13.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8
14. 김봉렬, 압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8
15.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4
16. 임창복, 한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반성과 과제, 건축문화, 1992.1